

김병훈은 서울이라는 특정한 도시의 공간을 찍었다. 사진 속 대상들은 특별한 소재이기보다는 진부한 일상의 형상들로 채워져 있다. 그러니까 대체로 평범한 것들이다. 거리의 풍경, 지나는 사람, 진열장, 좌판에 놓인 생선, 나무와 햇살, 동물원의 동물들, 식물의 줄기와 잎사귀 등이다. 그러나 그렇게 찍힌 사물은 작가의 사진의 프레임과 긴밀한 실존적인 관계 속으로 묶여 들어가는 동시에 그 스스로 말을 하게 하고, 그 대상이 지닌 이상한 힘에 우리의 시선을 새삼 주목시킨다. 김병훈의 사진은 정서적이고 감상적인 힘이 대상에 비해 다소 앞선다는 느낌이지만 그의 사진은 나름대로 대상을 해석하는 방식이자 장치의 일관됨을 보여준다. 사진이 사진 찍는 자와 대상 간의 긴장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라면 그의 사진 역시 침묵 속에 많은 것을 함축해서 보여준다.

그는 도시의 비근한 일상 속에서, 삶에서 어떤 신비를 찾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그의 사진은 그 현실에 독특한 빛을 던져 준다. 도시를 이루는, 일상을 축적시키는 불협화음적인 이미지들은 사진 속에서 새로운 모습을 띤다. 평범함으로부터 얻어진 이 요소들은 슬픔과 고통, 기쁨과 진부함의 원천이며, 모든 권태로움에 떨림을 낳는다. 현재의 삶의 현실과 현실 속에 숨겨진 복잡한 문제들의 뉘앙스, 모습들을 기록하는 그의 시선은 현실에 밀착되어 있다. 사색이나 몽상이 아니라 그때그때 자신의 육체와 감정에 부딪치는 순간을 기록하고 있다는 생각이다. 그러니까 그의 사진은 한편으로는 외부의 충격과 긴장에서 오는 삶의 체험과 다른 한편으로는 기억과 추억, 무의식의 부분에 축적된 비밀스런 내적인 경험 사이에 복잡하게 얽힌 망속에서 이루어진다. 아울러 빠르게 변화하는 현실에 대한 특별한 입장과 연관되어 있다. 그러니까 김병훈의 사진은 바로 그러한 심리적인 위기의식에 기반을 두고 있어 보인다. 인간의 마음보다 더 빨리 변하는 도시의 형태, 일상의 모습에서 그가 겪는 미묘한 심리적 굴곡과 위기, 강렬해지는 추억 등이 그의 사진이다. 결국 그 사진은 노스텔지어에 가깝다. 현재 그가 살고 있는 세계와 과거에 살았던 세계와의 괴리를 느끼는 데서 오는 어떤 상실감, 아픔이 사진 속에 배어 있다.

그는 도시를 삶의 공간으로 삼고 있다. 오늘날 도시는 모든 이의 고향이며 일상의 공간이고 삶의 핵심이다. 항상 선택된 시간과 공간, 예기치 않은 시간과 장소, 익숙하면서도 수시로 몸을 바꾸는 공간이자 뭔가 불안하고 흔들리는 존재들이 소요하는 곳이고,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삶의 형태에 그렇게 서 있다. 사람들은 그곳에서 익명의 존재로, 또는 이방인으로 타자로 살아간다. 도시란 현대미술, 현대사진의 선택된 장소다. 또한 도시는 현대인의 불안과 우울, 향수적인 아픔 등이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선택된 장소인 것이다. 작가는 도처에서 현재의 삶이 갖는 덧없고 순간적인 미를 찾는다. 순간적인 것, 곧 사라질 것, 찰나적인 것이 영원한 것을 대신한다.

작가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매우 일상적이고 친근한 실생활과 순간적이고 소멸되는 성격의 현대 도시의 삶 속에서, 독특한 것과 개인적인 것을 통해 새로운 미, 아름다움, 우수와 노스텔지어를 발견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런 속에서 예술가의 임무란 일상의 가장 직접적인 현실과 과감하게 맞서 그로부터 그것이 가지는 모든 다양함과 모든 뉘앙스, 모든 탈바꿈을 자극하는 것이며, 현실로부터 존재의 영원한 의미를 드러내 보이는 일종의 '상형문자'를 끌어내는 것이다. 그것은 순간적인 것에서 영원한 것을 추출하는 일이기도 하다.

그는 모든 것을 새롭게 본다. 그래서 그는 항상 도취되어 있다. 결국 그는 고독한 산보자가 되어, 대도시라는 '인간의 사막'속에서 관조의 즐거움에 빠져 거리를 서성거린다. 그리고 그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찾는다.

그의 눈에 비친 이 현실은 지금이라는 시간의 의식과 연결되어 있다. 세상의 공간을 산책하는 이의 시선에 걸린 모든 풍경과 모든 느낌은 적조하다. 그는 그렇게 하염없이 걷는다. 공간 속으로, 사람들 사이로 그리고 사물과 사물의 틈사이로... 어쩌면 그 틈으로 들어가는 일이 그의 일과 같기도 하다. 그렇게 다가오고 눈에 비치고 가슴으로 들어와 박힌 모든 존재는 결국 낯선 부재다. 김병훈은 그렇게 존재의 틈 사이로 마냥 들어간다. 들어가고 싶어한다. 사진기의 렌즈는 그 틈을 벌리고 만들어 놓는 유일한 매개다. 그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은 경이롭고 애잔하고 슬프며 어둡고 또한 밝다. 그는 공간 속 사물과 빈번한 만남을 갖는다. 그 일이 그에게 유일한 삶의 일이다. 지난 소중한 기억을 찾아주는 매개물인 세상의 모든 것, 모든 느낌을 가능한 한 온전히 기록하고자 한다. 그것은 추억과 기억, 시간을 기억하고자,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이기도 하다.

그는 좋아하는 것이 무척 많다고 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것이 그가 좋아하는 것의 목록이다. 그러니까 종이와 수많은 꽃들을 좋아하고, 알싸한 풀냄새와 종이냄새 역시 좋아하며, 정오의 강렬한 햇살이 나뭇잎과 가지들 사이로 흐를 때 그리고 깊고 어두운 침묵이 드리워질 때 생기는 빛의 아름다운 생명력을 무엇보다도 사랑한다. 또한 비오는 날, 토란 우산, 황학동, 인사동과 관훈동 거리, 지포 라이터, 골동품 가게 등등이 자신이 좋아하는 것들이다. 그는 그런 것들을 즐겨 찍는다. 그의 사진은 자신이 좋아하는 것들의 자기 고백적인, 짝사랑적인, 추억적인 사진이다. 지난 소중한 기억들을 찾아주는 매개물인 세상의 모든 것들을 너무나 사랑하기에 그 소중한 것을 보존하고 기억하고 불멸의 존재로 만들고 싶다는 욕망이 그의 사진의 척추를 부여잡고 있다. 어쩌면 지극히 감상적이고 지극히 자기애적인 이 사진들은 감미롭고 아늑하다.

그는 오랜 시간 동안 일정한 공간을 반복해서 산책하면서 그것의 소멸을, 변화를, 그것도 급변하는 상들을 기록해 왔다. 그에게 변화란 낯설과 안타까움, 그리고 일종의 변질이고 죽음이다. 그것들은 그에게 슬픈 감정을 부풀려준다. 슬픔을 기록하는 것, 지나간 것들을 상기하는 것, 기억과 향수를 기록하는 것이 이미지였다면 그의 사진 역시 그러한 욕망에서 여전히 자유롭지 못하다.

작가는 하염없이 걷는다. 그에게 이 보행은 일종의 '보행 명상'이다. 육체를 스스로 짊어지고 공간 속으로, 세상 속으로 걸어 들어간다. 세상의 고요에 사물과 인간들은 비로소 소음을 낸다. 그것들은 자신의 존재를 또한 그렇게 슬프게 반사한다. 눈이 부시다. 햇살은 그 상처난 몸을 더듬는다. 거기 그 육체의 적나라한 나신이 슬며시, 불현듯 부감된다. 그러니까 빛이 부재하다면 존재는 사라진다. 그래서 그는 그런 빛들을 안타깝게 추적한다.

서울 공간 곳곳을 산책하고 그렇게 해서 눈에 걸려든 사물들을 찍었다. 그리고 그것들을 반복해서 찍는다. 그 사물의 피부에는 동심과 추억이 묻어 있다. 그는 사물을 보면서 기억에 머문 채 살고 있다. 그 기억을 담고 있는 거리, 상점의 쇼윈도우, 낡은 책의 표지, 나무와 햇살 등 어떤 순간의 기억을 반복하여 상기시키는 매체들이 그가 찍는 대상들이다. 기억을 유지하기 위하여 작동하는 시선과 촬영, 그리고 그렇게 해서 찍힌 사진은 기억하는 물질인 두뇌의 보완물이다.

그는 산책을 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순간적으로 멈추어 놓았다. 순간은 아름답다. 우리 인간은 모두 아름다운 시간을 멈추게 하기 위해 욕망한다. 사진이나 영상을 이용하여 시간의 흐름을 멈추게 하려는 수많은 시도들의 반복이 그렇다. 기억이란 어떤 순간을 멈추게 하려는 의지의 형식이라고 말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추억이나 회상, 그것은 이런 기억이 과거의 시제를 취할 때 나타난다.

현재의 시간성을 과거로 반복하여 끌어들이는 때, 새로운 생성의 삶은 멈추고, 변화는 중단된다. 다른 것이 되기를 그치는 것, 생성의 중단, 그것은 죽음이다. 과거, 추억, 향수란 결국 모두 죽은 것들이고, 사진은 그 죽음을 다시 기념한다. 추억과 기억이 많은 자들은 현재의 삶을 죽음으로 채우고 있는 이들이다. 그들은 그래서 근원적으로 슬프다. 이미지를 만드는 모든 이들은 그런 슬픔과 죽음에 적셔진 존재들이다.

4

김병훈은 일기와 같은 사진을 찍는다. 그는 텍스트가 있는 사진을 찍고, 자신의 하루하루를, 매일의 산책을 서울이라는 공간에서 만난 사물들과 사람의 피부를 찍는다. 무엇보다도 그는 그렇게 거닐면서 자연스레 추억과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모든 사물들을 찍고 있다. 그것은 일상이 되었다. 그래서 그가 찍은 사진은 지극히 안락하고 또한 편하다.

현재의 시간을 살고 있지만 현재를 과거로 끌어들이는 자성에 의해 자신을 둘러싼 다른 삶을 정지된 기억의 선으로, 그 죽음의 선으로 끌어들이는 것이다. 그것은 과거의 집착에 따른 희생물들이다. 하지만 기억으로 정지하는 시간은 단지 멈추게 하고픈 순간들, 아름다운 추억의 순간만은 아니다. 반대로 지울 수 없는 강한 사건들, 대개는 상처로 기록되는 사건들 역시 기억의 형식으로 우리의 현재 속에 머물며, 우리의 신체 속에 남는다.

트라우마(Trauma), 그것은 감당하기엔 너무도 고통스러운 의식에 지워진, 그러나 결코 지워지지 않은 채 무의식의 영역에 살아 남아 있는 과거다. 그것은 집착의 다른 형태다. 끔찍한 강도의 기억말이다. 아주 작은 자극만으로도 되살아나는 가슴 아픈 상처들, 그 상처들을 오히려 더 찾아 나서고 있다. 우리들 인간은 살면서 그렇게 지워지지 않는 기억에서 자유롭지 않은 상처를 지니고 있다. 모두가 불현듯 과거의 시간, 멈추어진 시간의 자성 속에 갇혀 있는 것이다.

모든 사진에는 덧없이 흘러가 버리는 순간에 대한 집착으로서 '지금, 여기'의 일회적 현존에 대한 지극한 관심, 강박적 집착 같은 것들이 스며들어 있기도 하다. 그가 찍은 사진에는 시간의 흔적, 시간의 개입이 들어 있다. 모든 생명체들, 사물과 세계는 시간의 지배를 받는다. 어쩌면 인간은 시간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고자, 시간의 힘을 막고자 이미지를 고안했는지 모르겠다. 이미지를 빌어 비로소 시간의 입김이 범접하지 못할 정지와 영구성을 만들었다. 이미지는 인간의 죽음에 대한 불안과 공포, 시간의 위력에 대항하기 위해 고안한 장치다. 사진은 그런 장치, 기능을 가장 구체화시킨 매체다. 모든 사물과 세계를 네모꼴의 세계에 가두어 사물을, 시간과 공간을 정지시키고 공간적, 시간적 단절을 보여준다. 시간의 지배로부터 일시적으로 풀려난 세계가 사진 속의 세계다.

사진을 찍는다는 것은 일종의 정지를 만들어내는 것이고, 부피와 면적을 갖지 않는 시간의 점을 보여준다. 이것은 사진만이 지닌 능력이다. 우리들의 시선은 결코 시간을 점으로 볼 수 없으며, 세계를 정지시켜서 그토록 오랫동안 응시할 수 없다. 사진은 특정 피사체를 그것이 자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립시키고 단편화시킨다. 결국 그것은 단순한 현실이 아닌 강조된 현실, 작가의 시선에 의해 의미 부여가 된 현실이다.

그렇게 강조된 현실의 단편을 주어진 프레임 안에 가두어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게 낱아챈 순간이 우리에게 말을 건네고 감정을 불러일으키며 다가오는 것이다. 그것이 다름 아닌 사진의 시적 능력일 것이다. 사진은 여러 종류의 형태 기호들이 모여 이루어내는 일종의 말, 침묵의 언어이다. 이 명시적인 내용이 없는 사진의 말은 오히려 풍성한 다성적이고 다층적인 목소리를 낸다. 그 소리를 통해 우리는 일상의 진부함으로부터 스스로를 일깨울 수 있다.

사진을 찍는다는 것은 말을 낱아채는 것이며 또한 말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사진은 언어로 규정되지 않는, 비안정적인 부정형의 기호들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져 메시지를 파생시키는 '비메시지적 메시지'다. 이미지란, 사진이미지란 의미에 대한 복합적인 명상이다 (롤랑 바르트).

5

작가는 93년부터 최근까지 찍은 사진들을 한자리에 모았다. 그것들 모두는 침착하게 조율된 흑백사진들이고, 우리네 일상의 비근한 사물과 풍경들이다. 이렇다 할 긴장감이나 극적 고조감은 납작하게 눌러진 채 다만 감상적이고 낭만적인 분위기만이 슬쩍 용기되어 있어 보인다. 적조함과 향수, 고독이 배어 있는 사진의 전형성 역시 엿보인다. 사진은 근원적으로 침묵이지만 그의 사진은 그런 고독감에 깊숙이 잠겨 있다.

그는 또한 사진의 소재를 가까운 곳에서, 소박한 데서 찾는다. 그리고 아쉬워하면서 뒤돌아 본 것을 찍는다고 한다. 그는 늘상 그런 아쉬움, 상실감, 안타까움의 시선으로 대상을 바라본다. 사진가가 찍어내는 것은 대상이라기보다는 어쩌면 자기자신, 자아일 것이다. 피사체를 빌어 스스로를 투사하는 것, 다시 말해 사진가는 의미를 추구하기보다는 스스로를 무의식적으로 복제한다. 이미 자신의 현실의 한 부분을 선택해서 사진에 담는다는 행위에는 의미부여가 들어가 있으며, 무엇인가를 본다는 것은 스스로의 삶에 의미 있는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어떤 현상을 의미 있게 보고 이를 사진으로 담는다는 것은 그러한 현상이 거기 있기 보다는 그러한 현상이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사진가는 스스로가 주목하여 형상화시킨 내용을 타자와 공유하고자 그의 사진을 공개한다. 의미와 문맥 속으로 보는 이의 시선과 마음을 초대한다. 말을 건네고 말을 기다리는 것이다. 보는 이의 감정과 사고를 요구한다. 그래서 한 장의 사진은 외부세계를 드러내는 것이라기보다는 스스로의 내부세계를 드러내는 것에 가깝다. 사진은 단순히 대상을 드러내고 기술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인간, 인간과 사물, 사물과 사물 혹은 환경과의 관계를, 그리고 그 관계성을 주목시킨다.

그의 사진 역시 그런 미묘한 관계성을 보여준다. 그러나 그것은 명료하지 않다. 은밀한가 하면 모호하기도 하고 선명한 것 같으면서도 애매하다. 메를로 폰티가 멋지게 말했듯이 "표현이란 마치 어느 누구도 어디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알 수 없는 안개 속으로 내딛는 걸음과 같은 것"이다.

그가 찍은 대상은 늘상 자신이 이전에 보았던 것, 만났던 것이 지금은 변화되어 다시 자신 앞에 존재한 것들이다. 그것은 분명 자신의 기억 저편에 자리한 것들이다. 이 경우 기억이란 단지 과거에 관한 것이 아니라, 현재의 시제를 갖는다. 그것은 멈추어선 현재, 과거로 돌아가기를 거부하며 지워지길 거부하는 현재, 그러니까 변이를 멈춘 현재적 삶이며, 멈추어선 삶의 시제다. 여기서 기억이란 주어진 어떤 삶, 혹은 현재라고 불리는 어떤 하나의 점을 멈추게 하는 의지의 형식이다. 그는 지난 시절, 시간에 보았던 사물들의 기억을 다시 확인한다. 혹은 사라지고 없어진 자리에서 그 이전의 자취를 떠올린다. 지난 시간이 기억 속에 자리한 사물들은 자기 동일성, 정체성을 유지시켜 주는 매개다. 동일성 / 정체성은 현재의 삶을 멈추어선 시간성

속에 붙들어 맴으로써 지워지지 않는 기억의 형식으로 변환시키는 고정된 형식이며, 멈추어선 삶을 당연한 현재성의 시제 속에 고정하고 유지하는 재생산의 형식이다.

망각이라는 만행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혹은 망각으로부터 소중한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 우리는 사진의 기념이라는 방식의 보충행위를 한다. 그것은 무의식적인 의지의 영역인 기억과 망각의 문제를 의식으로, 표면으로 떠올리기 위한 의식적 상기 행위가 사진을 찍는 일, 그것을 앨범의 갈피 속에 가두는 일, 수시로 꺼내 보는 일이다. 사진은 과거를 현재로 불러낸다. 하지만 그것이 수행하는 것은 정확하게는 과거의 사건에 다시금 현재를 연결시키고, 다른 곳으로 흘러가고 있는 현재를 과거의 그 방향으로 되돌리려는 안쓰러운 노력일 뿐이다.

6

김병훈은 서울 주변을 찍는다. 그가 늘상 다니고 보는 공간, 한 번 더 가보고 싶은 곳, 1년에 백 번 이상 혹은 서른 번 이상 다닌 곳이다. 그래서 눈에 선하고 지난 시간을 역사처럼 간직하고 있는 곳이다. 그가 즐겨 다니는 곳은 대개 정해져 있다. 혜화동을 걸어서 창경궁 담길, 인사동 거쳐 남대문시장, 호암갤러리, 소공동과 명동, 충무로 그리고 동대문과 을지로를 거쳐 청계천 공구상가를 지나 황학동으로 오는 코스다. 그렇다. 특히나 모퉁이를 돌 때마다 정감 있는 사물, 사람이 꺾이는 그런 길을 선호하는데 그곳은 다름 아니라 골목이다. 풍경이 차단되고 다시 시작되고 끝나는 곳, 새로운 풍경이 출현하는 곳, 시선을 막고 시선을 여는 곳, 삶의 자취가 만든 기이한 미로들 말이다.

그는 게으르고 느린 보행을 하면서 사진을 찍는다. 빛이 비추는 거리를 유유히 산책하면서 그림과 쓸쓸한 흔적들을 화면에 담는다. 적막, 적조, 고요의 시선들, 그리곤 항상 어디선가 빛이 흐르고 있는 풍경이 들어온다. 그 빛의 흐름을 추적하며 따라가는 눈이다. 그의 사진은 그러니까 한 개인의 흑백사진첩이다. 앨범이란 지난 시간을 저장하며 흘러간 시간의 봉함이다.

그는 모든 것들을 찍고 싶어한다. 세상의 모든 느낌을 저장하고 싶어하며, 그 모든 것을 기억하고 싶어한다. 기억하고자 하는 욕망은 순간의 시간에 집착하는 욕망이다. 아찔한 그리움을 간직하고자 하는 것이다. 기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 과거에 사로잡힌 사람, 그 / 그녀들은 기억을 지우지 못하는 자들이다.

기억력은 곧 기억에 완강하게 사로잡혀 있음을 뜻하고, 이는 현재의 상실에 가깝다. 새로운 것이 되기 위해서는 기억의 형태로 보존되는 무언가를 망각하고 지우지 않으면 안 된다. 아무것도 망각할 수 없는 자는 동일성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어떤 새로운 것이 되는 것이 불가능하다. 기억이란 본질적으로 과거의 시제를 갖는 것이다. 그것은 현재 속에 존재하는 과거의 흔적이고, 미래 속에 존속하는 과거의 흔적이다. 기억만 한다는 것은 그저 지나간 것, 보았던 것, 읽었던 것을 정확하게 재생하고 재현하며 그리워할 뿐이다. 기억과 무관한 것을 추가할 수 없을 때, 아니 그것을 통해 기억을 변용시킬 수 없을 때, 기억하고 있다는 것은 끔찍한 일이다. 그런 면에서 우리들은 그 기억을 지워낼 필요도 있다. 의식에서는 사라졌지만 그래서 더 지워지지 않고 남아 있는 기억을 찾아내고 언표하게 하고, 그럼으로써 그것을 지우려는 이들도 있다. 신체 깊숙이 뿌리박힌 상처를 찾아주고 지워 주는 것, 그것은 일종의 치료다. 그렇다면 그에게 사진은 일종의 치료인가? 혹은 여전히 그의 기억, 향수의 징표들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일인가?

무의식에 새겨진 기억을 지우며 새로이 생성의 능력을 키우는 것, 새로운 것이 되기 위해서는 기억의 형태로 보존되는 무언가를 망각하고 지우지 않으면 안 된다. 기억을 환기시키고 향수를 보존하는 사진은 동시에 망각의 능력 속에서 다시 소멸되어야 한다. 그것은 일종의 변신이고 변이이며 유목일 것이다. 우리는 끊임없이 변한다. 현재의 순간에 몰두할 때가 그럴 것이다. 사진은 현재에 몰두하게 하는 동시에 순간적으로 과거로 돌변하는 것 사이에 존재한다.

현재를 능동적으로 만들어갈 때, 새로운 것을 생성하는데 충분히 몰두할 때 기억에서 자유롭다. 망각이란 잊고 지운다는 부정적 과정이 아니라, 현재적 생성에 몰두함으로써 과거가 자연히 그 안에 끌려 들어가면서 변형되거나 망각되게 되는 긍정적 과정일 것이다. 그러니까 기억과 망각의 문제는 남기는가 지우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멈춤 없이 흘러가는 현재적 순간 그 자체에 몰두하는 것이며, 그렇기에 현재 그 자체에도 머물지 않고 고착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것은 현재에 집착하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과거, 현재, 미래 어느 시제에도 머물지 않고 집착하지 않는 것이다. 생성에는 시제가 없다. 그러나 사진은 결국 모두 지난 시제로 머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사진이 그 모든 시제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